

## [기자회견 자료]

‘강남역 사거리 철탑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단식 36일, 고공농성 29일차’

# 폭력, 괴롭힘, 불이익, 해고 등 노조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9. 7. 8. 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

#### 1. 기자회견 취지 및 진정요지 소개

: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 2. 노조설립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 1) 90년대 삼성 노조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

: 이재용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97년 해고노동자)

##### 2) 삼성의 해외공장 노동탄압 사례

: 나현필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

#### 3. 기업의 노동탄압, 인권침해 규탄발언

#### 4. 노조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조사 및 제도개선 촉구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5.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이후 진정서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면담 예정

\* 공동주최 : 60여 종교, 시민사회단체 (단체명 별첨)

\* 문의 : 010-8799-1302 (반올림 이종란), 010-6317-3460 (꿀잠 김소연), 010-5506-0119 (이재용 삼성해복투)

## 〈공동주최: 60여 종교, 시민사회단체〉

**[종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성심수녀회,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섭리수녀회JPIC,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한국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노조]** 민주노총 해고자복지투쟁특별위원회, 삼성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인권/정당 등]** 광주인권지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극단고래,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변 노동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전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데모당, 민들레 -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과함께하는길벗한의사모임,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형명재단 **(이상 66개 단체)**

## 〈진정내용〉

- \*진정인 : 반올림(이종란), 다산인권센터(박진), 삼성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이재용)
- \*피해자 :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등 다수
- \*피진정인 : 이재용 삼성 부회장 및 기업 경영진
- \*진정취지 : 노조설립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괴롭힘, 불이익, 해고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를 요합니다.

\*진정내용(요약) :

삼성그룹은 창립 이래 80년 동안 무노조경영을 표방하며 노동자들의 단결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해왔습니다.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각목 테러, 폭행, 납치, 가족 괴롭힘, 경찰, 사법부 등 공권력과 결탁되어 체포, 구속 등 야만적 인권 침해를 벌여왔습니다.

피해자 김용희님은 80, 90년대에 삼성에서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납치, 해고, 가족 괴롭힘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현재도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김용희님은 2019. 7. 8. 현재 해고자 복직과 명예회복, 사과를 요구하며 강남역4거리의 CCTV 철탑에서 단식36일째, 고공농성 2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의 농성을 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삼성이 노조설립을 막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하고, 사법부와 결탁해 구속을 시키고, 온갖 인권침해를 하고도 처벌은커녕 단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형태의 구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용희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용희 님과 함께 강남역 앞에서 천막농성중인 삼성중공업 해고자 이재용 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과거의 일이라고 문제제기 할 수 없다면 이 일은 되풀이 될 것입니다. 삼성의 노조탄압은 계속되어와 최근 몇 년 동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노조설립파괴공작으로 현재 재판중), 삼성지회(에버랜드 조장희 해고, 감시 등 부당노동행위 기소) 등 노조탄압,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국내를 넘어 삼성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현지 공장에서 공권력과 결탁하여 노동통제와 노조설립 파괴 공작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조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삼성 기업의 폭력, 인권침해 만행은 국가 공권력이 결탁되었고,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국외로 암처럼 번졌습니다. 한국에서 과거에 벌어졌던 극렬한 인권침해행위가 무시되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기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회사경비대 등 사측이 집단적 폭행을 자행하여 노동자들이 골절, 상해 등 피해를 입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경찰은 회사 내 일이라며 폭력에 대해 방관, 방조하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야만적 폭행,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내외에서 노조설립과정과 운영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권고를 해주십시오.

## 〈김용희 인권침해 사례〉

1959. 7. 10.생

1982. 12. 2. 삼성항공(주) 창원 1공장 입사

1984. 2. 1. 삼성시계(주)로 전보발령.

1990. 6월, 제3대 노사협의회 위원 당선.

1990. 8월, 삼성그룹 경남지역 노조설립 준비위원장으로 노조설립을 준비

1990. 11월 삼성시계 하모 과장이 관계사 기술개발현장을 답사하자하여 운전기사를 대동한 차를 타고 나섰다가, 대구 호텔방에 7일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노조설립준비 포기를 강요함. 뜻을 포기하지 않자 염모 부장이 하모 과장과 호텔방에서 교대하여 또 다시 전라도 대흥사 주변 모텔에 감금하고 7일 동안 노조설립 준비 포기 강요, 목표의 부모님 자택을 찾아가 자식을 설득하라고 회유

(김용희의 아버지는 유언장을 남기고 행방불명됨=> 가장 가슴아파하는 부분임)

1991. 2,3월 사원들에게 노동조합 필요성을 알리고, 회사의 비리 관련 진상규명 요구.

1991. 3월 28일 성추행 혐의로 징계하고 (사건조작에 의한 해고)

\* 성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여사원에게 이것이 회사에 의한 계약임을 실토하고,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공증을 받음. (그런데 1993년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던 변호사 문재인(현 대통령)은 해당 공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해고소송은 패소함. 이후 홀로 상고심 재판을 제기함)

1992. 5. 18. 삼성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이 김용희의 부인을 성폭행 함.

[1992. 5. 25. 부산일보 기사] “해고노동자 부인 납치, 경찰관이 성폭행 미수”

『경찰관이 해고노동자 부인을 승용차로 납치, 강제로 성폭행을 기도했으나 창원경찰서가 이같은 사실을 은폐한 가운데 합의를 종용,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삼성시계(주) 해고노동자 부인 이 모씨 (30세)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9시께 점포구입 관계로 중앙동 모 주점에 서 임모씨(삼성시계 인사과 전모씨의 부인)와 만나 의논 중 임씨와 잘 아는 창원경찰서 기동대 소속 황 해경 순경(28세)이 나타나 자신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스쿠프 승용차에 태워 임씨부터 먼저 내려준 뒤 자신을 대방동으로 납치, 차속에서 성폭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성폭행 직전 성주파출소 C3순찰차량에 의해 구조돼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나 성주파출소는 황순경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19일 오후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황순경이 이씨를 성폭행 하려 하면서 성폭행 계획을 임 모씨(인사과 부인)도 알고 있다고 해 사전 계획된 범행이란 인상을 짚게 했다. 이 씨는 경찰이 사건을 무마하려 하자 지난 23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1994. 대법원(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 '결심 공판' 15일 앞두고, 삼성 비서실과 사측 임원이 찾아와 “상고 취하서를 작성해주면 계열사에 1년만 근무하다 원직에 복직시켜 주겠다”하여 복직합의서 작성(94년 1월), 대법원에 상고포기서 제출(94년 3월).

1994. ~1995. 삼성건설(삼성물산 건설지부 러시아 스몰렌스키 지부) 발령.

여기서도 삼성은 계속해서 “노조포기각서”를 강요하다 안되자 손과 팔을 포승줄로 5시간 동안 묶어놓고 김용희의 007가방을 부수고 복직합의서 등 일체의 서류를 갈취해 가고, 간첩으로 러시아 대사관에 고발하여 공안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로 풀려남.

“(러시아에서 간첩으로 내몰린 사건 이후) 사측은 자기들의 음모를 감추기 위해 한달에 한번씩 부서 전환배치와 국내 입국을 막기위해 싱가포르 건설현장으로 5년간 국외 근무하라 하여 저는 무조건 국내송환요구하며 무기한단식투쟁에 돌입하던중 10일쯤 지나 삼성물산 부사장이 단식투쟁중인 저를 찾아와 송환 일자리를 약속하고 단식을 중단 국내에 들어와 원직복직이 되리라 믿었는데 사측은 해고통지도 없이 출근을 막고 법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서 서울로 올라와 삼성그룹본사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단식투쟁을 하다가 두 번이나 구속되었습니다. 1차 구속 사유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사면복권) 2차 구속사유는 공갈죄입니다 해고기간의 임금을 요구했는데 공갈죄가 성립되는 삼성자본의 권력앞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2018. 김용희,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중)

1995. 7월 복직 약속 후 3년간 대기 발령 중

1998. 삼성시계가 퇴출기업으로 선정.

1999. 5. 13.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회사가 단식 16일째, 업무방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구속(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1999. 11. 13.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삼성계열사 복직 요구하며 단식농성(48일만에 중단)

2000. 2. 3. 2차 구속 (명예훼손죄)

2000.~2001. -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김0민 차장이 공갈죄(해고기간 임금요구를 공갈죄로 엮어서)로 고소한 사건으로 재판 진행.

2016~ 2017. 삼성본관앞 해고자 복직요구 집회시위, 광화문 앞 단식농성

2018. 5. 1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비방), 항소심서 무죄

공소장에서는 ‘피고인은 2017. 3. 18.경 성남 00주차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 SAMSUNG 앞에 뗏뗏하십니까? 삼성그룹에 노조를 만들려다 수년째 악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봉고 화물차 걸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후 2017. 3. 21. 09:00경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관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강남구 테헤란로 133도로를 경유하여 삼성생명 본관 앞 도로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은 현수막이 설치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문재인의 성명을 명시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2017노3651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에서는

“비록 이 사건 현수막에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통령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기 훨씬 전부터 삼성 측 및 문재인 으로부터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당일에도 삼성 측에 복직과 보상을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삼성생명 본사 앞과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을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 사옥 앞을 약 20여 분간 약 3.5킬로미터를 왕복하였던 점, 이 사건 현수막 역시 삼성 측의 부당해고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장기간의 투쟁이 주된 내용으로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고 판시.

2019. 6. 10. 강남역사거리 CCTV철탑에 올라가 고공시위 시작(단식 8일째)

2019. 7. 8. 현재, 단식농성 36일째, 고공농성 29일째 임.

## 〈기자회견문〉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단식 36일, 고공농성 29일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권고 촉구 기자회견문

### 폭력, 괴롭힘, 불이익, 해고 등 노조설립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

강남역 사거리 CCTV 첩탐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20 여년 전에 해고된 늙은 해고노동자 김용희님이 첩탐위에서 “해고자 복직과 명예회복”, “이재용 구속”을 바라며 밥을 굶고 농성 중에 있습니다. 해고자의 절규에 대하여 삼성은 아직까지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김용희 님의 단식 36일차, 고공농성 29일차가 되는 7월 8일 오늘, 60여 시민사회단체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왔습니다.

삼성그룹은 1938년 창립 이래 현재까지 80년 동안 헌법에 반하는 무노조경영을 유지해 왔습니다. 무노조경영 하에 삼성이 저질러왔던 인권침해, 노동자 탄압은 그 행태가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삼성의 무노조경영 노동탄압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찰, 노동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벌여졌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시계, 삼성SDI, 에버랜드 등 삼성계열사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하고자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하면 삼성그룹 수뇌부(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등 재벌총수 일가의 직속기구인 과거 구조조정본부, 미래전략실)는 노조를 와해시키려 매뉴얼대로 미행, 감시, 격리, 인사상 불이익, 해고 등 많은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80~90년대는 삼성의 노조와해 수법이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을 납치하고, 흥기로 머리를 때리고, 포승줄로 묶어 폭행하고, 안기부로 끌고가 협박하고, 가족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금품으로 회유하고, 해외사업장으로 격리시키고 경찰과 사업부가 동원되어 구속하고, 성폭력 등 끔찍한 사건을 조작하여 해고하였음에도 노동자들은 결국 대한민국 법과 제도로 구제받지 못했고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벌여졌던 이러한 삼성의 야만적인 무노조경영 노동탄압 인권침해는 반드시 한국 현대사에 제대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제대로 기록, 조사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

도록 해야 합니다.

2016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항쟁을 일으키고 부패한 정치권력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하였고,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재벌 대기업 오너들을 함께 심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경영승계 자금을 만들기 위해 계열사를 마구 인수/합병/분할하고,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대고, 뇌물액수와 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큰 부패를 저질렀던 삼성그룹의 3대 부정 세습자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 판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대통령 문재인과 현 정부는 범죄자 이재용과의 선긋기를 하지 않고 이재용의 사업경영을 독려하는 등 죄를 면제해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삼성시계와 삼성물산에서 해고된 노동자 김용희는 강남역 사거리의 CCTV 첩탐(교통관제탑) 위에 올라가 30일이 넘도록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첩탐 아래로는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김용희님은 80~90년대 삼성의 노조설립과정에서 겪었던 결코 잊을 수 없는 극심한 인권침해의 트라우마로 인해 지금까지도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0일이면 60세 정년이 도래한다며 그 전에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지만, 삼성은 대화도 거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용희님은 삼성 무노조경영의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또한 김용희 님에게 매일 하루 한통의 물을 올려주고 살아 내려올 수 있도록 돌봐주며 땅에서 천막농성 중인 이재용 삼성중공업 해고자 또한 무노조경영의 피해자입니다. 이재용 님의 경우는 2013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자로 선정되었고, 그 결과 해당 위원회에서는 삼성중공업에 원직 복직을 권고하였으나 삼성중공업은 경영난을 이유로 복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두 늙은 해고자가 삼성을 향해 ‘부당해고,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정년 전에 마지막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뜻이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정의감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삼성 현지 공장의 노동탄압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은 한국에서의 수법 그대로 해외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무노조 경영을 관철시키고 노조를 와해시키고 해고 및 심각한 인권침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도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며 ‘문제사원’을 색출하고, 소셜미디어까지 통제하며, 어용노조를 만들어 탄압했습니다. 독일, 헝가리, 타이, 말레이시아에서도 노조파괴공작을 벌였습니다.

노조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삼성 기업의 폭력, 인권침해 만행은 국가 공권력이 결탁되었고,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국외로 암처럼 번졌습니다. 한국에서 과거에 벌어졌던 극렬한 인권침해행위가 무시되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인들을 포함한 6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의 노조설립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권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업의 노조활동 방해 인권침해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기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회사경비대 등 사측이 집단적 폭행을 자행하여 노동자들이 골절, 상해 등 피해를 입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경찰은 회사 내 일이라며 폭력에 대해 방관, 방조하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야만적 폭행,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 권고를 촉구합니다.

2019. 7. 8.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성심수녀회,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섭리수녀회JPIC,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한국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민주노총 해고자복지투쟁특별위원회, 삼성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삼성화재에너지지부, 광주인권지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극단고래,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변 노동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전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데모당, 민들레 -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과함께하는길벗한의사모임,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형명재단 **(이상 66개 단체)**